칼 럼

정 기 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제 21대 국회 개원을 보는 국민의 불길한 시각

제21대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처음으로 본회의를 6월 5일 개원했다. 지난 5월 30일 국회 임기 시작 날 제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당선 소감을 "국회법을 잘 지켜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으며 "상생의 협치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개원 첫날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하는데 제일 야당인 미래통합당 이 퇴장하여 더불어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193명 참석으로 국회의장에 박병석 (6선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으로 여당 부의장 김상희(여성 몫 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하고 반쪽 국회를 열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며 미국의 상원 수는 100명이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도 100명으로 하자는 민의가 있었으나 국회 의원 수를 300명으로 했으며 야당의 퇴장으로 193명 국회를 처음부터 운영한 것이다.

일하는 국회라면서 국회 안에서 일을 하지 않고 퇴장한 국회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정당하게 토론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할 국회의원이 처음부터 퇴장하는 나쁜 전통은 국회에서 사라져야 하며 151명의 초선의원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퇴장한 초선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처음부터 미래통합당이 발목잡기 구세를 부리기 시작했으며 다수당인 여당은 밀어붙이기식 국회운영을 하고 있어 대통령의 연설도 생략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이 새롭게 바뀌진 것은 없고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퇴장하고 여당 단독 국회운영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은 다수 야당으로서 국회 운영을 협치와 상생의 국회를 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반성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첫날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모습을 보였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 시작을 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되며 야당과 잘 화합하는 상생의 국회 운영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인 심부름꾼이며 일 잘하는 일꾼인 것을 생각하고 일터를 떠나서는 안 되며 당리당략에 몰려선 안 된다. 청렴한 공직자로서 민주주의 선진국을 만드는 일꾼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므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먼저 법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하며 정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서로 돕는 상생의 국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찬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초선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나쁜 관행에 물들지 말고 배우면서 일하는 자세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찬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구 당선 국회의원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지역구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며 비례대표 당선 국회의원은 각 당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서열에 따라 당선된 만큼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민주정치 선진국이 되려면 국회가 선진화되어야 하며 국회의원들이 덴마크 국회의원들처럼 일 잘하는 모범 국회의원이 되어, 이제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국회가 되어주기를 국민은 소망한다.

과거의 관행은 버려야 한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국회의원이 일터인 국회를 떠나서는 안 되며 국회 안에서 국사를 논의해야 하고 당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다수 옳은 의견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면 안 된다.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제21대 국회의 국회의장단 선거인데 미래통합당의 전원 퇴장은 처음부터 좋지 못한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社 說

광주시 민생대책, 사각지대 없어야

광주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지키기 민생안정대책'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의 이번 대책은 다양한 영역과 계층에 맞춤형으로 기획·실행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한창 어려움을 겪던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초까지 7차례에 걸쳐 내놓은 '지역경제 지키기 민생안정대책' 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융자 지원' 은 중앙정부의 '코로나 특례보증' 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및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달 11일까지 1만8천43건, 5천1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2차 대책으로 시행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경감 정책 역시 4만2천894가구에서 22억원의 감면 혜택을 누렸으며, 나아가 광주시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에 따라 임차인들이 579건 13억원을 절감했다.

아울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소득지원과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한 가계 긴급생계비는 29만1천798가구에 1천6억원이 광주상생카드 방식으로 지원되었는데, 생계지원금의 대다수가 지역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돼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입이 급감한 저소득 특수고용직 등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2개월동안 총 100만원을 지원해 지난 11일 현재 6천753명이 수혜를 입었고, 711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해 220개사 1523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생안전대책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광주시는 정책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기업·지원기관·연구원 등과 함께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멈추고 생각한 후 행동하자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무수한 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면 잠시 멈추어 생각한 후 행동하는 연습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앞만 보고 너무 빨리 달려가면 주변을 볼 수가 없다. 세상은 혼자 살수가 없으며 공동체 속에 나의 작은 배려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많은 사람과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많은 대화 속에서 진정 알맹이 있는 대화 보다는 불필요한 대화가 주류를 이룰 때가 많다.

살아가며 점점 더 느끼는 것은 바로 말의 중요성이다. 결국은 말로써 한 사람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말로써 그 사람의 장래도 결정된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말이 경박하면 바로 격하된다.

지위 높낮이에 관계없이 말하는 게 천박하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결국 상대방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 어떤 기준인가? 그의 행동과 말하는 것을 보고 한다.

말의 습관, 말하는 자세, 그가 쓰는 언어들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대변 한다.

필자 역시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알면서 모임장소에서는 거친 말을 서슴지 않고 하거나 천박스러운 말을 많이 해왔으나 정작 본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바라보고 생각해왔다.

이 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말과 행동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생활한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과 행동을 할 때 첫 번째는 잠시 멈추고 (stop) 두 번째는 생각해보고 (think) 세 번째는 행동(action) 하면 자신을 더 품격 높일 수 있는 인격을 갖출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는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지금까지 100여회의 기고문의 주제를 작성할 때 언어 구사능력, 설득력 있고, 겸손한 글, 독자가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심사숙고하면서 작성하지만 타인과의 대화에서는 이런 법칙을 마음속에 두면서도 지키지 못하였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겉모습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지만, 올바른 심성의 소유자에게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멈추어 생각하고 행동을 실천 한다면 공동체 속에서 나에 대한 신뢰감과 품격이 높아질 것이다.

국중균/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 행 인·편 집 인 김 평 호
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